

清末과 林紓의 교육 지향
- 林紓의 翻譯을 보는 또 다른 시각 -

백 광 준*

<目次>

I. 林紓에 대한 오해	IV. 林紓의 번역 ...
II. 林紓 번역의 지향	문학 교육의 실천
III. 林紓의 번역 ...	V. 교육자 林紓 그리고 그 이후
시대를 향한 교육	

I. 林紓에 대한 오해

시대의 발전이라는 방향성으로 인해, 우리는 종종 잊힌, 사라져간 인물을 쉽게 평가절하하곤 한다. 임서 역시 5.4 신문화 운동 추진 과정에서 누구보다 진면에 나서 古文의 고수를 주장한 탓에, 역사의 흐름을 거스른 인물로 여겨져 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 지적하듯, 清末이라는 시기를 살았던 임서, 그리고 그의 번역 실천에 대해 ‘보수적’이라고 간단히 못 박을 수는 없다.¹⁾ 단적으로 임서는 1898년에 이미 백화로 <閩中新樂府>라는 시를 남긴 바 있다. 당시는 백화 주장이 갖 싹트기 시작하던 시기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²⁾ 백화를 이용한 창작 시도는 그야말로 파격적이고 선도적인 것이다. 이 예만 보더라도, 우리는 문언/백화의 구분

* 전북대 쌀·삶·문명연구원 HK연구교수

1) 李宗剛, <對新式教育視野下的林譯小說的再解讀>, <對林譯小說風靡一時的再解讀>, 張光芒, <真誠的“遺老”-民初時機林紓思想重評> 등 참고.

2) 裘廷梁의 유명한 글 <論白話爲維新之本>이 이즈음에 등장한다.

을 바탕으로, 임서를 단순히 문언 수호자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다.

나아가 임서에 대한 기존의 평가는 우리로 하여금 시대의 흐름과 별도의 행보를 걸었던 인물로 임서를 바라보게 만든다. 곧 그는 전통 수호의 의지를 바탕으로, 문언을 고집하며 서양 문학작품 번역에 종사했다고 간주된다. 하지만 그가 번역에 종사하며 품은 생각들을 음미하면, 오히려 시대에 대해 얼마나 고민했으며, 또한 시대와 얼마나 깊은 관련을 맺으며 실천을 했는지를 알 수 있다. 특히 그가 백화가 아니라 문언으로 번역에 종사했던 것 역시 당시 사회에서 문언이 여전히 소통의 주요 언어였던 상황을 우선 주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³⁾ 1897년 임서는 王壽昌으로부터 《춘회(巴黎茶花女遺事)》의 번역 제안을 받고 번역에 착수, 당시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문언으로 번역한 소설이었음에도 이렇게 유행하였다는 사실은 그의 번역이 당시 사회에 자리 잡은 광범위한 지식인 독자층의 배치와 맞물리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한 가지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그가 문언으로 소설을, 그것도 외국소설을 선뜻 번역하였다는 사실이다. 전통 사회에서 소설이 ‘小技’로 여겨졌던 점을 감안하다면, 문언으로 소설을, 그것도 외국 소설을 번역한 것은 대단히 파격적인 것이다. ‘소설’뿐만 아니라 ‘외국’을 받아들이고 있는 점으로부터, 우리는 임서가 결코 고루한 사고를 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문언을 선택하여 번역을 시도했다는 점으로부터, 그에게 있어서, 문언이란 상황에 따라서 선택 가능한 글쓰기의 한 양태였을 것이라는 점을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임서의 번역은 시대와 긴밀히 관련을 맺으며 진행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바로 이 글에서는 그간 임서에 대한 이러한 오해, 그리고 그로 인한 연구의 편면성 등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청말이라는 시대적 상황과 임서라는 인물이 어떻게 조우하여, 번역이 탄생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자 한다. 이는 그의 번역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그리고 그

3) 줄고, <19세기 말 중국 담론의 수사와 번역 - 《時務報》, 《清議報》, 《浙江潮》, 《東方雜誌》, 《民報》를 중심으로>, 477-479쪽 참고.

를 여실히 이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시각으로서 의의를 갖기 때문이다.

II. 林紓 번역의 지향

결론부터 말하자면, 임서의 번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시각은 바로 교육이라는 문제이다. 19세기 말 중국에서 교육은 당시 중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책으로 떠올랐다. 康有爲, 梁啓超, 嚴復 등은 하나같이 교육이야말로 구국의 길이라고 외쳤고, 이는 變法維新을 거친 뒤 우여곡절 끝에 1901년 중국 최초의 교육 학제를 만들면서 구체화되었다.⁴⁾ 임서 역시 이러한 당시 교육 혁신의 흐름에 적극 동참하고 있었다. 앞서 소개한 것처럼, 임서는 1898년에 <閩中新樂府>를 지었다.

서당에 다니는 아이들 3, 4년 공부하니, 젓내 가지지 않은 입으로 성현을 중앙거리지만, 언젠가 소 매매계약서 좀 써 달라하니, 외려 위아래도 분간 못하네. 3년을 공부했으나 계약서도 못 쓰니, 어머니는 선생을 욕하고 아버지는 증오하네. …… 시골 선생, 공경하지 말고, 재능 있는 인물입네 좋은 학교입네 떠들지 마시게. 강국의 기틀은 아이들 교육에 달려 있다오. 아이들의 지혜가 깨쳐져야, 서양 사람들을 넘어설 수 있는 게요.⁵⁾

塾師들의 형편없는 교육이 아이들의 교육을 망친다는 비판적 시선을 가지고, 아이들의 교육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글이다. 그는 이른 시기에 벌써 교육을 통해서 ‘아시아를 일으키고(興亞)’ 또는 ‘나라를 강성하게(強國)’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성현만을 되뇌이는, 현실과 괴리된 전통 교육만으로는 안 되고, 교육

4) 그린비를 참조할 것.

5) 林紓, <閩中新樂府·村先生>: “村童讀書三四年, 乳臭滿口談聖賢. 偶然請之書牛券, 卻尋不出上下論, 書讀三年券不成, 母咒先生父成怨. ……村先生, 休足恭, 莫言芹藻與辟雍, 強國之基在蒙養. 兒童智慧須開爽, 方能凌駕歐人上.”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야 한다고 지식인들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당시 여느 維新派 못지않게 강력히 교육진흥을 부르짖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한 해 전에 직접 신식학당을 설립하여, 교육 혁신을 실천하기도 하였다. 곧 1897년에 자신의 고향을 신식중학당인 ‘蒼霞精舍’로 개축하여, 스스로 漢文總教習을 담당하고 외부 인사를 초빙하여 서학을 강의토록 하기도 하였다. 신식학당에서 문언과 서학을 전수하는 것이 당시 임서가 세운 뜻이었던 셈이다.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번역 소설로 이름을 날린 뒤인 1906년에는 京師大學堂 豫科와 師範館의 經學敎員으로 초빙되었고, 1910년에는 大學經文科의 교육을 담당하였다. 19세기 말의 교육 지향과 실천이 지속되고 있음을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 스스로도 1907년에 “강국은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가? 대답컨대, 학문을 바탕으로 하고 학생을 바탕으로 하고, 학생들이 나라에 뜻을 두는 것에 바탕을 둔다.”⁶⁾고 천명한 바도 있다. 이는 뒤에 보겠지만, 청년학생과 교육에 대한 그의 기대와 신념을 응축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그에게서 교육과 번역은 어떻게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인가? 사실 임서가 원래 가졌던 교육 실천의 지향에서, 번역이라는 새로운 실천의 방식으로 전환한 것은 당시 나라의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간 것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임서는 1901년 3월에 항주에서 《譯林》의 창간준비를 서두르며, 앞서 1900년 12월에 간행사를 썼다.

민지를 깨치려면 반드시 학당을 세워야 하지만, 학당의 성과는 더디어서 학회를 세워 연결하는 것만 못하다. 그러나 연결도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결국은 번역밖에 없다고 생각한다.⁷⁾

6) 林紓, <愛國二童子傳·達旨>: “強國者何恃? 曰: 恃學, 恃學生, 恃學生之有志於國.”

7) 林紓, <譯林·敍>: “吾謂欲開民智, 必立學堂, 學堂功緩, 不如立會演說, 演說又不易舉, 終之唯有譯書.”(王秉欽 著, 《20世紀中國翻譯思想史》, 76쪽 재인용)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임서의 마음의 변화를 읽어낼 수 있다. 애초 계몽을 위해 학당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학당의 성과는 더디기만 했다. 국난의 변화로 인한 위기의식 속에서 초조하였던 그는 당장 성과를 낼 수 있으며, 또한 광범위하게 효력을 일으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점에서 그는 번역이라는 실천의 방식을 찾은 것이다. 그의 심정은 다음 글에서 절실하게 묘사되고 있다.

아! 지금 수도를 지키지 못하고 국모는 몽진을 떠나셨다. 지금 우리 모두가 수치를 느끼고 포복절규를 하는 시국에, 설령 서양의 책을 모두 번역한다 한들, 어찌 보탬이 될 수 있겠는가? 하지만 큰 시냇물은 말라도 샘물은 마르지 않으리니, 내 감히 나서지 않을 수 없으며, 들판의 불은 꺼져도 불뚝은 타오르리니, 내 이리하지 않을 수 있으랴!⁸⁾

그는 의화단 운동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서양 연합군의 침략을 받아, 북경을 지키지 못하고, 국모인 서태후가 피난까지 가게 된 상황을 울분 어린 시선으로 분통해하며 지켜보았다. 그리고 그가 할 수 있는 애국 실천의 방법으로 번역에 뛰어 들었음을 토로하고 있다. 그는 번역을 통해서, 말라버린 샘을 솟구치게 하고 잿바닥을 다시금 활활 타오르게 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그의 소설이 가진 시대적 의의를 충분히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그의 번역이 시대를 각성시키기 위한 사자후였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임서의 실천이 교육을 통한 계몽에서 번역을 통한 계몽으로 옮겨갔어도, ‘교육구국’이라는 근본적 지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바꿔 말하면, 그는 번역 작품을 통해 독자층을 대상으로 여전히 계몽 ‘교육’을 실천하였다. 그래서 흥미롭게도, 그의 번역 작품은 다수 대중보다

8) 林紓, <譯林敘>: “嗚呼! 今日神京不守, 二聖西行, 此吾曹銜羞蒙恥, 呼天搶地之日, 卽盡譯西人之書, 豈足爲補? 雖然, 大澗垂枯, 而泉眼未涸, 吾不敢不導之; 燎原垂滅, 而星火猶燭, 吾不能不然之.”

는 ‘피교육자’로서 조국의 미래를 걸머질 ‘청년학생’들을 향하였다.

난 노쇠하여 지체도 용기도 없고, 또 학식도 없어서 힘을 쏟아 나라의 원수를 갚을 수도 없으니, 날마다 애국의 눈물을 글썽이며, 학생들에게 호소한다. 그리고 여력이 남으면, 하루의 힘이라도 다해 소설을 번역할 것이다.⁹⁾

1906년에 쓰인 이 글은 임서가 학생들을 주 계몽 대상으로 삼았음을 시사한다. 그는 애국의 열정으로 시국을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그마저 부득이하다면 소설을 번역하여 현재의 위기 상황을 알려나가는 교육자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또한 1907년에 쓴 <愛國二童子傳·達旨>에서는 “귀하고 소중하며, 골육처럼 친근하며, 성현처럼 존귀한 청년들에게 알리노니, 읽어주시기를 바란다.”¹⁰⁾고 적었다. 청년학생 앞에 붙은 장황한 수식어는 그야말로 그들을 중국의 앞날에 있어 얼마나 중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지를 보여주며, 또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대상으로 애국정신을 고취하려는 절절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당시 청년 郭沫若은 임서의 번역에 보이는 많은 오역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여준 낭만주의 정신은 자신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술회한 바 있다.¹¹⁾ 임서의 낭만주의적 실천은 훗날 5.4운동을 실천한 청년학생들에게 큰 밑거름이었던 것이다.

임서가 가진 교육 지향을 주목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商務印書館과의 협력 관계이다. 氷心은 어려서 잔돈을 모아 책을 사들였다고 했고, 그 대부분이 商務印書館에서 출판한 임서의 번역 소설이었다고 회상하였다.¹²⁾ 또 정진탁에 따르면, 임서의 번역 작품은 몇 권을 제외하면 대부분

9) 林紓, <霧中人>: “余老矣, 無智無勇, 而又無學, 不能肆力復我國仇, 日苞其愛國之淚, 告之學生; 又不已, 則肆其日力以譯小說.”

10) 林紓, <愛國二童子傳·達旨>: “冀以誠告海內至寶至貴, 親如骨肉, 尊如聖賢之青年學生讀之, 以振動愛國之志氣.”

11) 郭沫若, <<我的童年>>

상무인서관에서 출판되었다고 한다.¹³⁾ 상무인서관은 그야말로 임서의 번역 실천과 함께 하였던 것으로, 임서의 실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우리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목할 점은, 당시 상무인서관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던 張元濟 역시 교육구국의 큰 포부를 품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장원제는 1897년 엄복 등의 도움을 받아, 通藝學堂을 설립하여, “구미에서는 학술을 장려하여, 새로운 이치가 날마다 등장하고 있다. …… 이 학당에서는 전적으로 서양의 여러 실학을 탐구한다.”¹⁴⁾고 내걸고 교육 활동을 펼쳤으며, 이듬해 상무인서관에 들어갔을 때에는, “우리들은 교육 진흥을 소임으로 삼아야한다”고 의지를 밝히기도 하였다.¹⁵⁾ 그의 평소 지향을 통해서, 서학 보급에 대한 그의 신념, 그리고 이후 상무인서관의 출판 방향을 가늠할 수 있다. 상무인서관은 그 명칭에서 짐작되듯, 애초에는 상업 관계의 책을 취급하는 인쇄회사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는 이 출판사를 종합 출판사로 발전시켰다.¹⁶⁾ 더구나 임서의 벗이었던 高鳳謙도 얼마 후 상무인서관에 결합하였는데, 그 역시도 교육구국론의 적극 지지자였다. 그는 교과서 간행을 시작으로 30여 년간을 상무인서관에 몸담았다.¹⁷⁾ 이외에도 임서, 양계초, 채원배 등 많은 인사들이 상무인서관과 협력 관계를 유지하였다. 사실상 당시 상무인서관은 교육 관련 담론을 생산하고, 소개하고, 교육 관련 사업을 펼치면서, 교육 구국이라는 담론의 진원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들은 교육에 뜻을 둔 임서가 상무인서관과 가진 기나긴 협력 관계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춘회》가 문단을 휩쓴 뒤, 고봉검을 통해 상무인서관과 연을 맺게 된

12) 鬱乃堯, <商務元老張元濟>(《人物》, 第5期), 2003.

13) 鄭振鐸, <林琴南先生>

14) “歐美勵學, 新理日出. ……故此學堂專講泰西諸種實學.”(<通藝學堂章程>(喻本伐, 熊賢君 著, 《中國教育發展史》, 383쪽)

15) “吾輩當以扶助教育爲己任.”(史春風 著, 《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 132쪽)

16) 松村茂樹 著, 《近代中國の文化人と書》, 126쪽.

17) 史春風 著, 《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 132쪽.

임서는 《툼 아저씨의 오두막》을 시작으로 181부에 이르는 번역서를 출간한다. 그리고 1903년부터 상무인서관에서는 ‘林譯小說叢書’, ‘說部叢書’ 등을 내놓기 시작하였다. 다음 장에서 보겠지만, 임서가 상무인서관에 결합한 뒤, 그 곳에서 처음 번역 출판한 책이 시대 의식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때부터 시대에 대한 일갈을 토하기 시작하였다는 점 등은 교육과 번역을 매개로 한 둘 간의 관계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번역자이기 이전에 교육자의 지향을 가졌던 임서의 사유를 읽는 것, 그것이 그 번역을 온전히 읽는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각임을 알 수 있다.

III. 林紘의 번역 ... 시대를 향한 교육

그렇다면 임서는 왜 구태여 서양의 소설 번역을 자신의 실천 사업으로 선택한 것일까? 신학당의 공간 제한성으로 인해 번역을 대안으로 찾았던 데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는 학당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자연스럽게 소설을 발견하였다. 당시 중국 출판계에서 추리 소설 등 소설 류가 당시 이미 광범위하게 유통하고 있었고,¹⁸⁾ 또 한편 양계초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소설계 혁명 등의 주장 역시 임서가 소설을 선택하는 데 탄력을 주었던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그가 1901년에 벌써 외국 작가들이 “대개 소설로 국민의식을 계발한다.”¹⁹⁾고 인식한 데서 보듯, 소설이 가진 심대한 계몽성을 당시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그는 1906년에 쓴 <紅礁畫漿錄·二題>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민간의 젊은이들이 세상물정 모르는 훈장에게 가로막혀, 어리석은 채로

18) 中國老少年, <中國偵探案·弁言>(《二十世紀中國小說理論資料》, 213쪽)

19) 林紘, <譯林敘>: “多以小說啓發民智.”

평생을 보낸다. 하지만 뛰어난 이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훈장에게 도움을 받기 보다는 오히려 소설의 도움을 받는다. 곧 서양의 소설은 기묘하지만, 그 중에는 철리를 담고 있고, 경험을 담아내어, 쓸모없는 작품이 없다.²⁰⁾

이 글은 그의 지향이 어떻게 외국소설 번역과 결합되었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여기에서 소설은 전통적 교육 방식과 대치되어, 새로운 이치를 깨칠 수 있는 올바른 교육 방식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는 곧 임서가 소설 번역에 뛰어든 주된 이유이다. 또한 나아가 서양 소설은 허황된 작품이 없어서, 깊이 읽으면, 심오한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왜 서양 소설을 번역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이렇게 해서, 임서는 이제 소설이 마련해준 드넓은 교육공간을 바탕으로 시대 상황에 따른 자신의 생각을 전달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청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당시 시대 상황을 깨치고자 했던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임서는 시대 상황에 따라 그의 번역서가 가진 시대적 의의를 명확히 설명코자 하였다. 그러니까 그는 당시 상황에 따라 ‘수업’의 주제를 시의적절히 안배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컨대 1901년에 임서는 《톰 아저씨의 오두막(黑奴籲天錄)》을 번역하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 책을 번역한 것은 교묘하게 애처로이 서술하여 독자의 눈물샘을 자극하려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 민족의 노예화가 점차 가까워져, 대중들에게 울부짖지 않을 수 없어서였을 따름이다. ……저마다 이미 옛 진적을 팽개치고, 新學을 열심히 탐구하고 있으니, 내 책이 비록 보잘 것 없다 해도, 뜻을 진작시키고 애국과 민족을 보전하는 데 일조하기에는 충분하리라.²¹⁾

20) 林紓, <紅礁畫漿錄·二題>: “委巷子弟爲腐窳學究所遏抑, 恒顛預終其身, 而清俊者轉不得力於學究, 而得力於小說. 故西人小說, 卽奇恣荒渺, 其中非寓以哲理, 卽參以閱曆, 無苟然之作.”

21) 林紓, <黑奴籲天錄·跋>: “譯是書, 非巧於敘悲, 以博閱者無端之眼淚, 特爲奴之勢逼及吾種, 不能不爲大衆一號. ……人人旣鑿棄故紙, 勤求新學; 則吾書雖俚淺, 亦足爲振作志氣, 愛國保種之一助.”

이 책은 공연히 눈물샘을 자극하는 소설이 아니라, 열강의 노예화가 엄습할 위기에 처해있음을 일깨우기 위한 것이었음을 분명히 못박고 있다. 신학에 힘쓰는 당시 조류 속에서, 그는 서양소설을 번역하였다고 했다. 그의 책이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교과서’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실려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당시 시대적 위기에 따른 학술 변화 속에서 신선한 자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번역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책을 시작으로, 이후 그의 번역은 시대 상황에 따라 주제를 달리하며 번역 소설들을 소개하였다. 대표적으로 1906년의 <霧中人>에서는 “백인이 아프리카를 잠식하는 것을 번역문에 누차 담은 것은 야만을 거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백인이 아프리카를 삼킬 수 있다면, 중아시아 역시 삼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하기 때문”²²⁾이라고 하며, 서양이 아프리카를 침탈하는 상황을 빌어 위기의식을 경계하였다. 그리고 1907년의 《劍底鴛鴦》에서는 상무정신을 고취하였다. 이는 1905년 학부가 ‘무의 숭상(尙武)’을 교육 방침의 하나로 확립하면서, ‘상무’가 중국의 교육 이념의 하나로 확정되었던²³⁾ 상황과 직간접적으로 결부되고 있다. 또한 1908년에는 《蛇女士傳》을 번역하여 여성교육의 제창을 부르짖었고, 혁명의 기운이 무르익던 당시 다시 《大俠紅鬃露傳》을 출간하여 혁명세력들의 실천 방법이 무익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임서는 그 내용과 시대 상황을 결부시켜서 서적을 선정, 번역한 다음, 그가 당시 사회에 외치고 싶은 메시지를 담았다. 번역이라는 방식으로 시대에 참여하여 자신의 뜻을 외친 것이다. 陳熙績은 1907년에 쓴 글에서 임서의 이런 번역 특징을 잘 짚어내고 있다.

내 벗인 임 선생은 진작부터 서양 소설을 번역하면서, 사회를 개량하고 국민의식을 일깨우는 뜻을 담았다. 《춘희》가 출판된 뒤, 사람들은 남녀

22) 林紓, <霧中人>: “其於白人之蠶食斐洲, 累累見之譯筆. 非好語野蠻也, 須知白人可以並吞斐洲, 卽可以並吞中亞.”

23) 그린비.

의 사랑이 건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툼 아저씨의 오두막》이 출판된 뒤, 사람들은 귀천등급이 평등해야 함을 알게 되었다. 《戰血餘腥》은 군국주의를 알려주었고, 《愛國二童子》는 실업 진흥을 일깨웠다. …… 그 외에도 책마다 깊은 뜻이 담겨 있으니, 한 마디로 말하면, 선생은 진정 허투루 글을 쓰지 않았다.²⁴⁾

그래서 후자는 만청시기 임서의 번역 소설에는 상당수의 序, 跋, 小引, 達旨 혹은 ‘譯餘剩語’와 ‘短評數則’ 등이 덧붙여있고, 어떤 경우에는 번역문 가운데 案語와 評語를 집어넣기도 하여, 소설 평점과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고 지적하기도 한다.²⁵⁾ 이는 번역 소설 그 자체보다는 그 내용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려는 임서의 의도가 번역 작업에 관철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소설책은 반드시 그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한 번 읽어보면, 헛되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저 새로운 이치만 좋아하면서, 잠을 쫓는 데 쓴다면, 이는 작자의 뜻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자의 의도도 아니다.²⁶⁾

1908년에 쓴 이 글에서, 임서는 소설이라는 텍스트는 반드시 그 취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부질없이 읽고 치운다면, 이는 작자의 뜻도, 역자의 뜻도 아니라고 말하였다. 이는 독자들에게 소설의 참여성을 인지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번역 작업이 가진 담론 지향성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임서의 번역 실천은 때때로 자신의 목소리가 지나칠 경우,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서기가 힘들다는 맹

24) 陳熙績, 〈歇洛克奇案開場·敘〉: “吾友林畏廬先生夙以譯述泰西小說, 寓其改良社會·激勸人心之雅志. 自《茶花女》出, 人知男女用情之宜正; 自《黑奴籲天錄》出, 人知貴賤等級之宜平. 若《戰血餘腥》, 則示人以軍國之主義; 若《愛國二童子》, 則示人以實業之當興. …… 其餘亦一部有一部之微旨. 總而言之, 先生固無浪費之筆墨耳.”

25) 許桂亭 選注, 《鐵筆金針: 林紓文選》, 53쪽.

26) 林紓, 〈鍾乳鑿髓·序〉: “凡小說之書, 必知其宗旨之所在, 則偶讀一過, 始不爲虛. 若徒悅其新異, 用以破睡, 則不特非作者之意, 亦非譯者之意也.”

점을 안고 있다. 그 스스로도 그런 점을 의식하고 있었다.

내 나이 연로하여, 보국할 날도 얼마 없다. 그래서 날마다 새벽을 알리는 닭이 되어, 우리 민족을 깨우기를 바라면서, 항상 소설 서문에 내 흥금을 표출하였다. 감히 멋대로 지껄인 것이 아니니, 내 진심을 살펴주기를 바란다.²⁷⁾

그는 항상 소설 서문에 자신의 입장을 밝힘으로써, 그의 뜻이 실현될 수 있기를 절실히 바랐다. 그리고 조국의 새벽을 여는 닭을 지향하며 번역 실천을 지속하였다. 그의 실천은 당시 청년 지식인들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1904년에 노신은 “고국을 그려보지만 앞날은 막막하고, 더구나 톰 아저씨와 같은 전철을 밟는 것 같아서, 더욱 느껴워 한탄스럽다.”²⁸⁾고 하였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은 바다 건너 일본에서 유학하고 있던 청년 노신의 마음까지도 울리며,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도록 자극하였던 것이다. 또한 1907에는 李叔同 등 일본유학생들이 春柳社를 조직하여 《톰 아저씨의 오두막》을 연극으로 개편, 북경에서 상연하기도 하였다.

요컨대 임서는 자신이 번역하는 소설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뜻을 강력히 드러냄으로써, 지식인들을 계도하고자 하였다. 그는 번역을 통해서 새로운 내용들을 알려나갔고, 서문을 통해 ‘학습 지침’을 설정하였다. 곧 사회를 대상으로 번역을 통한 계몽 교육을 전개한 것이다.

27) 林紓, <不如歸·序>: “紓年已老, 報國無日, 故日爲叫旦之雞, 冀吾同胞警醒, 恒於小說序中攄其胸臆, 非敢妄肆嗥吠, 尙祈鑒我血誠。”

28) 魯迅, <魯迅書信集·致蔣抑卮>: “曼思故國, 來日方長, 載悲黑奴前車如是, 彌益感喟。”

IV. 林紓의 번역 ... 문학 교육의 실천

시대를 구하는 훌륭한 방법은 개혁에 달렸으니, 어찌 문장만 끌어안고 길이 요행만 바라리.²⁹⁾

이는 임서가 19세기 말에 쓴 <閩中新樂府>의 한 대목이다. 그 자신 청말의 대표적 문장가였다는 점에서, 개혁을 외침과 동시에 문장만 고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주목할 만하다. 5.4 신문화 운동을 앞둔 시점에서 문언을 옹호하고 나섰던 ‘시대착오적인’ 임서를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제 적어도 그가 단순히 문언 수호를 외친 것이 아니라 는 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시대적 위기를 구하기 위해서는 ‘변통’해야 한다고 외치며, 오히려 당시에 누구보다 앞선 시대적 감각을 보여 주고 있지 않은가. 전통 수호에 대한 임서의 반발은 그 후에도 계속 이어졌다.³⁰⁾ 이런 의식을 가졌던 임서는 서양 소설을 번역하면서도, 서구 작가의 글쓰기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많은 글에서 대상 작가가 어떻게 글을 엮어가는 지에 대해 치밀하게 분석하였다.

디킨스 선생은 글을 쓸 때 바둑 고수가 바둑알을 놓듯 하였다. 유유히 한 수씩 두지만, 거의 변화무쌍하다. 앞서 둔 곳에 두면, 이 수는 실로 상대를 앞서 제압한다. 대개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이미 복선이 있다. 복선이 치밀하기 때문에 역자는 나중에 글이 돌고 돌아 이를 언급하였을 때, 호응할 것이 없을 것을 막기 위하여, 작은 사물이나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무시하거나 잘라내지 않았다.³¹⁾

29) 林紓, <閩中新樂府·破藍衫>: “救時良策在通變, 豈抱文章長守株.”

30) 林紓, <《斐洲煙水愁城錄》序>(1905)에서도 동일한 감각이 유지되고 있다.

31) 林紓, <《冰雪因緣》序>: “獨迭更司先生臨文如善弈之著子, 間間一置, 殆千旋萬繞, 一至舊著之地, 則此著實先敵人, 蓋於未胚胎之前已伏線矣. 惟其伏線之微, 故雖一小物·一小事, 譯者亦無敢棄擲而刪節之, 防後來之筆旋繞到此, 無複叫應.”

디킨스의 글을 바둑 기사가 포석을 하는 것에 비유하여, 전체의 내용을 엮어가고 있는 수법에 대해 자세하게 논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글에서도 디킨스의 글에 대해 상세히 분석하였다.

한 마디는 반드시 깊은 뜻을 담고, 한 사건은 반드시 훗날 사건의 바탕을 이룬다. 손으로 간간히 써내려가지만, 전체 글 속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사람은 장소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진다. 비록 우연히 한 번 나타나서, 독자들이 거의 잊어먹었지만, 간간히 글이 전개되는 속에서 이미 등장되는 것이다. 읽다보면 출연 기억이 나서 책을 뒤져서 찾게 하는데, 또한 하나 하나 그 사람의 행적이고, 그 일의 연원을 알 수 있게 한다. 요컨대, 바둑 고수가 바둑돌을 놓는 것과 같다. 우연히 한 수를 두면, 훗날 모두 그 쓰임을 얻는 것을 헤아릴 수 없으니, 이것이 국수가 되는 까닭이다.³²⁾

두 글에서는 모두 디킨스가 어떻게 문장을 엮어가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게다가 여기에 소개하지는 않았지만, 아래 인용문의 앞부분에는 고문에서 흔히 범하는 오류까지 분석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서양 문장에 이해를 돕고 있어서, 사실상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가에 대한 강의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이다. 이외에도 <歇洛克奇案開場·序>를 통해서, 서양 추리소설의 ‘倒插法’을 분석함으로써, ‘신소설’가들이 도치 서술 수법을 이해하는 데 절실한 도움을 주기도 하였다.³³⁾

또한 입서의 비평은 글의 서술방식에 멈추지 않고, 제재의 측면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사마천, 반고는 아녀자의 잡단 일을 서술함에 세밀하여 음미할 만 하였

32) 林紓, 《塊肉餘生述》前編序: “一語必寓微旨, 一事必種遠因. 手寫是間, 而全局應有之人, 逐處湧現, 隨地關合, 雖偶爾一見, 觀者幾復忘懷, 而閒閒著筆間, 已近拾即是, 讀之令人鬥然記憶, 循編逐節以索, 又一一有是人之行蹤, 得是事之來源. 綜言之, 如善奕之著子, 偶然一下, 不知後來咸得其用, 此所以成爲國手也.”

33) 陳平原 著, 李忠民 譯, 《中國小說敘事學》, 77쪽.

지만, 거둬 따져볼 만한 장편이 없었다. 거둬 따져볼 만한 장편으로는 《홍루몽》이 유일하다. 하지만 부귀를 과시하고 대갓집을 서술하고 남녀의 열정을 엮어 쉬이 눈길을 끌었다. 디킨스의 이 책은 하층 사회를 다채롭게 묘사하였다. 비록 가증스럽고 비열한 일이라도, 신기한 필치를 운용하여, 하나같이 사람들의 웃음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였다.³⁴⁾

임서는 중국 전통 작품에서 하층 사회의 일상을 장편으로 엮은 글을 찾아보기 힘들며, 《홍루몽》이 그나마 유일하지만, 그 역시 남녀 간의 애정을 중심으로 엮은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임서의 비평에서, 고문과 소설 등의 문체별 차이는 간과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는 서양 소설과 고문을 자주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놓고, 비평을 전개하였다.

디킨스는 명사와 미인의 틀을 깨뜨리고, 오로지 하층 사회의 묘사에 전념하였다. 교활하고 사납고,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은 홀연 사상누각이 되어, 독자를 웃게 하기도 하고 화나게 하기도 하였다가, 일시에 뒤집혀 손을 쓸 수 없을 정도에 이르니, 그 치밀한 문장 구상에 어찌 미칠 수 있으랴! 난 일찍이 고문이 서사, 특히 일상적인 평범한 일을 서술하기가 가장 어렵다고 말한 바 있다.³⁵⁾

디킨스는 하층민의 일상을 묘사하는 데 뛰어나다고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전통 글쓰기인 고문에서는 그와 같은 서술이 가장 힘들다고 보았다. 이렇게 소설, 고문 등 중국 전통 글쓰기와 서양 소설의 글쓰기는 문체적 차이를 초월하여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그의 문제의식이 오로지 글의 구

34) 林紓, <塊肉餘生述·前編序>: “史班敘婦人瑣事, 已綽綽可味矣, 顧無長篇可以尋繹. 其長篇可以尋繹者, 惟一《石頭記》, 然炫語富貴, 敘述故家, 緯之以男女之豔情, 而易動目. 若迭更司此書, 種種描摹下等社會, 雖可曠可鄙之事, 一運以佳妙之筆, 皆足供人噴飯.”

35) 林紓, <孝女耐兒傳·序>: “若迭更司者, 則掃蕩名士美人之局, 專爲下等社會寫照, 奸獪醜酷, 至於人意所未嘗置想之局, 幻爲空中樓閣, 使觀者或笑或怒, 一時顛倒至於不能自己, 則文心之遶曲寧可及耶! 余嘗謂古文中敘事, 惟敘家常平淡之事爲最難著筆.”

성이나 주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글쓰기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음을 확인시켜준다. 다음의 글은 그의 문제 의식의 깊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다.

내 일찍이 조용히 방에 칩거한 적이 있는데, 한 달이 지나자, 내 눈으로 보기도 전에, 집밖에서 나는 식구들의 발소리를 자못 변별해낼 수 있었다. 지금 내 여러 벗들이 간혹 서양의 글을 가져다가 내게 보여준다. 나는 외국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날마다 그들의 구술을 듣다보니, 또한 그 문장의 유풍을 가족의 발소리 관별하듯 구별할 수 있었다.³⁶⁾

사실 임서는 서양의 외국어를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서양 소설의 서사에 대한 분석은 오로지 번역 도우미의 구술에 근거한 것이다. 이는 원작을 직접 보지 못한 채, 이미 손님언어로 번역된 글을 대하고 분석한 것인 만큼, 그의 비평이 가진 신뢰성을 상당히 훼손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손님언어의 서사를 쫓 수 있다고 자신한 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가 이중 번역으로부터 오는 틈새들을, 내용 구성에 대한 집중적 분석으로 메우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³⁷⁾

이런 점에서 볼 때, 그의 비평이 서사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구술을 통한 비평이 갖는 한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전통 글쓰기와의 비교를 통해서 서양 소설의 글쓰기 원리를 규명코자 노력하였고, 스스로 터득한 바를 사람들에게 소상히 소개하였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국소설의 구성이 서양소설보다 뛰어난다는 점을 누차 역설하고 있었다는³⁸⁾ 점, 따라서 임서가 파격적인 평가를 내린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그가 서양 소설을

36) 林紓, <孝女耐兒傳·序>: “予嘗靜處一室, 可經月, 戶外家人足音頗能辨之了了, 而余目固未之接也. 今我同志數君子, 偶舉西土之文字示余, 余雖不審西文, 然日聞其口譯, 亦能區別其文章之流派, 如辨家人之足音.”

37) 林紓, <撒克遜劫後英雄略·序>에서도 관련한 언급을 확인할 수 있다.

38) 陳平原 著, 李忠民 譯, 《中國小說敘事學》, 109쪽.

번역, 소개하면서, 메시지의 전달과 더불어, 새로운 글쓰기를 알리고자 하는 지적 열망이 얼마나 강하였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이 책의 開場, 伏脈, 接筭, 結穴은 하나같이 모두 고문가의 의법을 구현하고 있다. 중국과 서양의 글쓰기의 방법이 다르면서도 겹치는 것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번역자는 그 원문에 따라 중국어로 바꾸었으니, 서양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들은 서양의 책을 낮게 보며, 그 글의 경계가 중국만 못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³⁹⁾

앞선 1901년에 그는 서양의 글쓰기가 고문가들의 의법을 구현하고 있으므로, 무작정 중국에 미치지 못한다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며 당시 사람들의 관념을 직접 문제 삼기도 하였다. 그는 앞에서 논술한 것처럼, 자신의 오랜 글쓰기 경험과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서양 글쓰기의 고문과의 관련성을 도출하였다. 물론 서양 소설과 고문을 연관 지어 비평하는 것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당시 주 독자층이 고문 소양이 풍부하였던 지식인들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⁴⁰⁾ 그들에게 익숙한 고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글쓰기를 비교, 설명하는 임서의 비평 방법은 문체 개혁의 실질적 효과를 담보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문제적이다. 곧 그가 결코 문언을 무작정 고수하려고 하지 않았음은 분명하며, 나아가 서양의 소설 글쓰기를 고문과 비교 설명하며, 서양의 글쓰기에 대한 사회적 이해를 넓히는 동시에 고문의 외연을 확장하고자 했음을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그는 1905년에 쓴 <洪罕女郎傳·跋語>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누군가는 만약 서학이 번성하면, 고문의 빛이 사그라질 것이라고 생각

39) 林紓, <黑奴籲天錄·齟言>: “是書開場·伏脈·接筭·結穴, 處處均得古文家義法. 可知中西文法, 有不同而同者. 譯者就其原文, 易以華語, 所冀有志西學者, 勿遞貶西書, 謂其文境不如中國也.”

40) 陳平原 著, 이종민 역, 《中國小說敘事學》, 45-46쪽.

하지만, 나는 결코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 학당에서 진정 서양과 중국의 두 학문을 병행하여 가르친다면, 옛 것은 더욱 정교해지고 새로운 것은 더욱 다듬어질 것이다.⁴¹⁾

그는 고문을 무작정 수호한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서양 소설의 글쓰기를 긍정하면서, 서양 글쓰기를 공부하면, 오히려 고문의 글쓰기를 더욱 더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고 강변하고 있다. 이는 자신의 번역 작업에 대한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상업적 의도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석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봐온 것에 따르면, 서양의 글쓰기를 꼼꼼하게 분석하고 있는 임서의 모습에서 역시 그 이상의 지향이 바탕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또한 주목할 점은, 서양의 글쓰기에 대한 비평이 학당에서의 글쓰기 수업에 대한 고민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임서에게 있어서, 앞장에서 본 서사의 문제, 그리고 글쓰기의 문제 등 ‘문학교육’에 대한 고민들은 자연스럽게 교육적 실천과 긴밀히 맞물려가고 있었다. 정진탁은 일찍이 이렇게 평가한 바 있다.

임 선생이 많은 서양문학 작품을 소개하고, 또 스콧의 글이 사마천에 못지않다고 여김에 따라서, 사람들이 그제야 구미에도 이른바 문학이라는 것이 있고, 또한 이른바 우리나라의 사마천에 비견할 만한 작가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⁴²⁾

정진탁은 임서가 중국에 서양의 문학과 작가들을 소개하였다고 말하였다. 당시 사회를 향한 임서의 ‘문학교육’의 지향을 확인시켜 준다.

이처럼 서양 문장의 원리를 알려주고자 하는 그의 강렬한 교육적 지향은 자신의 부족에 대한 회한의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41) 林紓, <洪罕女郎傳·跋語>: “或謂西學一昌, 則古文之光燄燄矣, 余殊不謂然. 學堂中果能將洋漢兩門, 分道揚鑣而指授, 舊者既精, 新者復熟.”

42) 鄭振鐸, <林琴南先生>: “到了林先生介紹了不少的西洋文學作品進來, 且以爲史各德的文字不下於太史公, 於是大家才知道歐美亦有所謂文學, 亦有所謂可與我國的太史公相比肩的作家.”

내 나이 이미 쉰 넷이 되어, 책을 들고 학생들의 뒤를 좇아서 서양 선생에게 공부를 배울 수 없음이 애석하다. 여러 번역서들은 모두 눈을 감고 귀에 기댄 것으로, 참으로 내 평생의 큰 불행이다. ……다만 중국과 서양의 글이 달라서, 사숙하고 싶지만, 배울 길이 없구나. 아! 청년학생들이 내가 늙어 정신이 흐린 것을 어찌 거울삼지 않을 수 있으리!⁴³⁾

자신이 좀 더 젊어서 서학을 깊이 공부할 수 있었다면, 중국의 글과 서양의 글의 차이를 더욱 깊이 헤아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의 학식의 부족으로 좀 더 심오한 이치를 가르쳐주지 못하는 노교수의 회한이 묻어나온다고 본다면, 지나친 것일까? 이제 그의 회한은 다시 청년 학생들에게 열심히 학문에 정진하라는 바람으로 이어진다.

나는 자신이 외국어를 알지 못하여 친구의 구술에 기대어서, 서양의 글의 묘처에 대해 특히 그 모습을 낱말이 그려낼 수 못한 것을 심히 한스럽게 생각한다. 그래서 강의실에서 여러 학생들에게 서양 학문에 힘써서 그들의 새로운 이치로 우리의 글쓰기를 개선한다면, 훗날 학계에 틀림없이 휘황한 날이 올 것이라고 독려했다.⁴⁴⁾

자신은 서양 글쓰기의 정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므로, 강의 중 학생들에게 서학에 정진하여 우리의 글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훗날 학계는 무궁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의 희망은 글쓰기에 대한 그 자신의 교육적 지향이 중국적으로 향하고 있는 목적지를 암시하는 것이다.

43) 林紓, <撒克遜劫後英雄略·序>: “惜余年已五十有四, 不能抱書從學生之後, 請業於西帥之門, 凡諸譯著, 均恃耳而屏目, 則真吾生之大不幸矣. …… 顧以中西文異, 雖欲私淑, 亦莫得所從. 嗟夫! 青年學生, 安可不以余老悖爲鑑哉!”

44) 林紓, <洪罕女郎傳·跋語>: “予頗自恨不知西文, 恃朋友口述, 而於西人文章妙處, 尤不能曲繪其狀. 故於講舍中敦喻諸生, 極力策勉其恣肆於西學, 以彼新理, 助我行文, 則異日學界中定更有光明之一日.”

V. 교육자 林紓 그리고 그 이후

학생들을 번역의 주 독자로 상정하고, 애국의식을 고취하고자 하는 임서의 지향 속에서, 시대와 번역은 병행하고 있으며, 그 바탕에는 교육을 통한 구국이라는 근본 지향이 깔려있음을 볼 수 있다. 나아가 그는 자신의 뜻을 번역 작품에 붙여 지식인들이 사회에 대해 각성하기를 바랐고, 글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구태를 극복하고 더 나은 서사의 실현을 희망하였다. 서양 소설을 번역하면서, 그 안에서 얻은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전수하는 교육자의 역할을 진득하게 수행해나갔던 것이다.

교육자로서 뛰어난 그의 면모는 그저 서양 문학에 대한 강의에 그치지 않고, 스스로 옛 틀을 깨뜨리며 몸소 실천하는 데 있었다. 앞에서 우리는 디킨스의 글이 평범한 글을 묘사하는 데 뛰어나다는 임서의 비평을 살펴본 적이 있다. 1906년 임서는 <拊掌錄·跋尾>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이 책의 원문은 세세하고 우아하면서도 번잡한 폐단이 없고, 문장이 거듭 이어지면서도, 문장의 조리가 넘쳐난다. 아쉽게도 난 글이 부족하여, 그 의미를 모두 전달할 수 없으니, 독자께서는 내 능력이 미치지 못함을 헤아려야 할 것이다. …… 원서는 영국 런던의 경관을 지극히 아름답게 묘사하였으나, 아쉽게도 내 필력이 부족하여, 그 모습을 낱낱이 그려낼 수가 없다. 참으로 안타깝다.⁴⁵⁾

임서는 1905년 즈음에 고문에 관한 한 “침삭을 가하지 않고, 손을 떼면 작품이 되었다.”⁴⁶⁾, “사람들이 말하지 못하는 것이나 말해도 다하지 못하는 것을 선생께서는 낱낱이 표현하고 또 남김없이 드러내었다.”⁴⁷⁾는 등

45) 林紓, <拊掌錄·跋尾>: “此書原文至細切溫雅, 而不傷於煩碎, 言之縷縷然, 盛有文理, 惜餘不文, 不能盡達其意, 讀者當諒吾力之不能逮也. …… 原書寫英倫景物至佳, 惜餘筆力脆薄, 不能曲繪其狀, 可惜也.”

46) 陳希彭, <十字軍英雄記·敘>(1906): “不加點竄, 脫手成篇.”

47) 濤園居士, <埃司蘭情俠傳·敘>(1904): “人所莫言, 言而莫盡者, 徵君則皆言, 而

이미 주위의 인정을 받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더 나은 글쓰기를 찾아가는 끝없는 여정에 나섰다. 앞에서 본 것처럼, 고문의 어려움은 일상사의 서술에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고,⁴⁸⁾ 고대 작품 속에서도 적절한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고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 서양 소설의 글쓰기 장점을 고문으로 흡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하염없이 자신의 무능을 자책하였다. 이런 지난한 노력의 과정 속에서, 그의 글쓰기는 서양의 글쓰기를 수용하며 변화하여 나갔다. 鄭逸梅의 지적은 그 점을 확인시켜준다. 곧 그는 “임서는 고문으로 서방의 장편소설을 번역하였다. 사경과 서정을 자유자재로 구사하였고, 특히 값진 것은 원문의 유머러스한 맛을 여실히 표출함으로써 고문의 새 경지를 개척하였다.”⁴⁹⁾고 말한 바 있다.

임서의 번역이 훗날 내로라하는 중국 작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쉽 없는 연구, 그리고 실천 속에서 배태된 것이라고 해도 틀림없을 것이다. 魯迅, 茅盾, 郭沫若, 鄭振鐸, 錢鍾書 등 많은 인물들은 임서 번역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그의 글이 가진 장점을 인정하였다. 그들은 꼭말약의 경우처럼 시대에 대한 그의 ‘용변’으로부터 감동을 받기도 하였고, 또 일부는 그의 ‘문학 수업’에서 큰 영향을 받았다. 氷心은 어려서의 기억을 되뇌며, “(임서의) 책 속의 감동적인 문장을 지금까지도 암송할 수 있다. 의심할 여지없이, 교과서 외의 이런 책들은 내 글쓰기에 매우 큰 도움을 주었다.”⁵⁰⁾고 말한 바 있다. 임서의 애국 열정, 그리고 텍스트에 대한 세심한 분석, 그리고 글쓰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다시 직접 자신의 글쓰기로 보여주는 실천은 당시 청년 지식인들에게 더 없이 좋은 교육이었을 것이다. 蘇雪林은 우리가 보고 있는 임서의 면모를 잘 그려

皆盡之矣。”

48) 林紓, <孝女耐兒傳·序>: “古文中敘事, 惟敘家常平淡之事爲最難著筆.”

49) 鄭逸梅, 《書報話舊》, 學林出版社, 1983, 30쪽(來新夏等著, 《中國近代圖書事業史》, 173쪽)

50) 鬱乃堯, <商務元老張元濟>: “書中的動人句子, 至今我還能背下來. 無疑這些課外讀物對於我的作文, 有很大的幫助.”(《人物》第5期, 2003)

보인다.

그의 작품을 읽고, 나는 그것을 통해 문리를 이해하고 문장을 쓸 수 있었다. 그는 내 어렸을 때 가장 탄복했던 한 명의 문인이었으며, 또한 내게 최초의 국어선생님이었다. …… 민국 초년에 오빠가 상해로부터 당시 유행하던 임서의 번역 소설을 몇 권 가지고 왔는데 …… 내게 중국의 고소설 외에 또 하나의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었으며, 점차 나는 之, 乎, 者, 也의 용법을 이해하게 되었고, 점차 문언으로 寫景과 記事의 글을 쓰고, 또한 임서의 필치를 꺾이나 그럴싸하게 모방할 수 있게 되었다.⁵¹⁾

그는 당시 중국의 문인이었고 또한 ‘국어선생님’이었으며, 꼭말약이 말했듯 낭만주의 정신을 지닌 개혁가이기도 하였다.

우리는 앞에서 상무인서관이 나아간 길과 임서의 지향이 결합되는 지점, 그리고 그 지점에서 번역이 매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본 바 있다. 1997년 상무인서관 창립 100주년 기념식에서, 陳原은 장원제의 원대한 계획이 단순히 책을 출판하는 데 있지 않고, 국민 전체의 소양을 함양하는 ‘대학교’로 운영하는 데 있다고 말하였다. 이는 상무인서관이 교과서 출판, 《교육잡지》 발행 등 교육 관련 출판물 간행뿐만 아니라, 교육 기관을 설립하여 직접 교육 활동을 벌인 것을 겨냥하여 말한 것이다.⁵²⁾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렇게 덧붙일 수 있을 것이다. 임서는 그 ‘대학교’에서 번역과를 맡아 진행하며, 사회에 대해 그리고 서양 소설에 대해 가르쳤노라고.

51) 蘇雪林, <林琴南先生>: “讀他的作品, 我因之而了解文義, 而能提筆寫文章, 他是我幼年時最佩服的一個文士, 又是我最初的國文導師. …… 民國初年大哥從上海帶來幾本那時正在風行的林譯小說 …… 使我於中國舊小說之外, 又發見了一個新天地. 漸漸地我明白了之乎者也的用法, 漸漸地能夠用文言寫一段寫景或記事小文, 並且摩擬林譯筆調, 居然很像.”

52) 史春風 著, 《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 131쪽.

< 參考文獻 >

- 林琴南 著, 《林琴南文集》(北京: 中國書店), 1985.
- 馮奇, 『林紓』(北京: 中國文史出版社), 1998.
- 許桂亭 選注, 『鐵筆金針: 林紓文選』(天津: 百花文藝出版社), 2002.
- 陳福康 著, 《中國譯學理論史稿》(上海: 上海外語教育出版社), 1992.
- 史春風 著, 《商務印書館與中國近代文化》(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7.
- 陳平原 著, 이종민 譯, 《中國小說敘事學》(서울: 도서출판 살림), 1994.
- 松村茂樹 著, 《近代中國の文化人と書》(東京: 研文出版), 2000.
- 伍傑, <林紓與書評>, 《中國圖書評論》, 第8期, 2005.
- 郝崗, <“林譯小說”與意識形態·出版機構的關係>, 《天津師範大學學報》, 第3期, 2006.
- 羅愛華, <晚清文人文化的轉向與文學翻譯活動>, 《船山學刊》, 第2期, 2006.
- 胡翠娥, <不是邊緣的邊緣—論晚清小說和小說翻譯中的偽譯和偽著>, 《中國比較文學》, 第3期, 2003.
- 李宗剛, <對新式教育視野下的林譯小說的再解讀>, 《揚州大學學報》, 第11卷 第4期, 2007.
- 줄고, <19세기 말 중국 담론의 수사와 번역 - 《時務報》, 《清議報》, 《浙江潮》, 《東方雜誌》, 《民報》를 중심으로>, 《中語中文學》, 韓國中語中文學會, 2007. 12.

< 中文提要 >

五四運動之前, 面臨著新文化運動的潮流, 林紓居然擁護文言, 于是他就被視爲保守派的領袖, 此烙印至今仍未抹掉。但是, 清末之際, 他所作的翻譯及其實踐并不是保守, 這使得我們重新深思。

十九世紀之末, 他居然將自己的房子改成新學堂, 教經學和西學, 稍後他

搬到北京，仍在大學堂講課。如此看來，他的人生基本上圍繞著教育持續下去的。不僅如此，他的翻譯也跟教育有著密切的關係，是值得注意的。舉例說，在很多文章中，他常針對著“青年學生”說自己的想法。我們從中看出，他便志乎教育。林紓從1901年開始，幾乎所有的翻譯書籍經商務印書館而出版。很有興趣的是，當時商務印書館裏聚集著不少維新派人士，皆提倡教育救國論，刊行教科書，並開展各種教育活動，那所可謂是教育基地。如接受林紓既有教育之志，不難理解林紓當時也在那兒做翻譯，是自然而然的。

他所翻譯的作品常有序、跋等。翻譯一本書後，他在該書的基礎上展開一些主張，即是提倡女學、發揚尚武精神、反對帝國主義等。他的主張皆跟著時局同步進行的，他曾說過自己有意“日爲叫旦之雞，冀吾同胞警醒”，由此看出他謹慎選擇符合事宜的翻譯文本，翻譯後，啓導學生確知翻譯的目的所在。

除了思想教育以外，他還進行著文學和書寫教育。他不僅翻譯外國小說，還熱中於钻研該文本書寫，將得出的結果跟學生一同分享。他從中發現外國小說擅長於敘事方面，變化難測，而且善於敘述日常之事，然後甚至嘆爲外國小說絕不亞於傳統文本。難能可貴的是，他不止滿足於此，進而他努力將外國敘事引進傳統書寫里，給學生看更豐富了的書寫。衆多新文學家都說過自己曾向林紓所翻譯的小說受到不少的影響。這都表明林紓所翻譯的意圖到底是什麼。

주제어 : 商務印書館, 敘事, 文言, 教育者, 翻譯, 글쓰기